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해방운동 서사

- 「1932년의 봄」과 「시시각각」을 중심으로 -

이상복*
sblee@sy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해방운동 서사 |
| 2. 유리코에 있어 프롤레타리아문학 | 4. 결론 |

主題語: 여성노동자(women laborer), 해방운동(liberation movement), 프롤레타리아 문학(proletarian literature), 탄압(repression), 유치장(jail)

1. 서론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은 “지배 권력의 반동체제 강화 속에서 전쟁과 전제주의에 반대하며, 일본문학의 민주적발전과 혁명문학의 추진을 위한 투쟁”¹⁾이었다. 프롤레타리아작가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 1899-1951년, ‘유리코’로 약칭)는 민주적인 문예비평은 물론 이거니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 유리코의 작품 활동은 1916년 발표한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貧しき人々の群)」²⁾로부터 시작된다. 이 작품은 조부가 개척을 지도한 구와노마을(桑野村) 농민들의 생활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17세의 미숙함은 있지만 리얼한 묘사력과 사회적 사고력이 뛰어나, 그 후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의 유리코를 예고했다.

유리코는 러시아에 있는 동안 학습한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조국에 실현”³⁾하기 위해, “동요와 혼란 속에서도 우경화한 작가들과 대립하며 보다 순수하게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혁명적 정신”⁴⁾을 지키려고 했다. 이런 유리코의 행동에 대해 오타 쓰토무(大田努)는 “인민

* 삼육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佐藤静夫(1968)「解説」『宮本百合子選集』3、新日本出版社、p.435

2)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貧しき人々の群)」는 1916년 3월 18일 제1일고 탈고 (221장) 후 수정을 거쳐 동년 7월 25일 쓰보우치 쇼요의 추천으로 『중앙공론』 동년 9월호에 발표되었다.

3) 津田孝(1969)「解説」『宮本百合子選集』8、新日本出版社、p.511

4) 西垣勤(1981)「宮本百合子の昭和十年前後-『一九三二年の春』刻々まで」『日本文学』30(12)、日本文学協会編、p.87

해방의 투쟁과 자신의 문학과를 결합시키려고 한 것”⁵⁾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야모토 유리코가 프롤레타리아작가 초기에 발표한 「1932년의 봄(一九三二年の春)」과 「시시각각(刻々)」을 분석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1932년의 봄」과 「시시각각」은 유리코가 1932년 3월 28일 도쿄를 떠나 나가노 현 시오지리시모스와(長野県塩尻市下諏訪)에서 문학서클 멤버들과의 만남에서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에 대한 탄압으로 4월7일 검거되어 6월 25일 석방될 때까지의 체험을 그리고 있다. 「시시각각」은 「1932년의 봄」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르보문학” “기록문학”⁶⁾으로, 유리코가 스스로 체험한 “천황제강권의 야만성과 비인간성을 폭로함에 있어 유치장 내에서도 개인의 권리의식을 짓밟는 것에 투쟁의 정당성을 대치시키고 있다.”⁷⁾

사토 시즈오(佐藤静夫)는 이 두 작품에 대해 “유치장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특별고등경찰(特別高等警察, 이하 특고경찰)의 포박한 취조 등의 묘사를 통하여 권력과 억압기구의 본질 폭로, 이에 대한 규탄과 항의, 부당한 탄압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노동운동과 그 노동자, 그들과 결부되어 있는 민주적인 문화운동과 그 활동가에 대한 <나>의 격려와 공감이 나타나있다.”⁸⁾고 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의 유리코와 그 당시의 사회적 현상을 살펴본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한 여공들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의 혁명운동을 고찰한다.

2. 유리코에 있어 프롤레타리아문학

유리코는 1918년 가을 미국 콜롬비아대학 청강생으로 뉴욕에 체류한다. 그때, 고대 동양어 연구자 아라키 시게루(荒木茂)와 결혼한다. 1919년 말 두 사람은 귀국하지만, 성격과 환경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하게 된다. 그 사이에 노가미야 야에코(野上弥生子)를 통해 알게 된 러시아 문학자 유아사 요시코(湯浅芳子)와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난 결혼생활을 배경으로 한 『노부코(伸子)』(『개조(改造)』1924년 9월-1926년 9월에 단속연재)를 발표하였다. 1927년에는 이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다룬 「한송이 꽃(一本の花)」을 발표한

5) 大田努(2009)「宮本百合子 ヒューマニズム思想の発展」『解釋教材研究』54(1)、学灯社、p.64

6) 西沢舜一(1988)「解説」『日本プロレタリア文学集』28、新日本出版社、p.416

7) 大田努(2009) 상계서、p.66

8) 佐藤静夫(1968) 상계서、p.436

후, 12월 유아사 요시코와 함께 러시아로 간다. 유리코가 러시아로 갈 때는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며 그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 이래 여성 노동자의 삶, 아이누족에 대한 인종차별, 인습에 따른 남녀차별 등, 사회적인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리코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립한 사회주의국 러시아 문학에 깊은 영향”⁹⁾을 받게 된다.

1930년 11월 귀국한 유리코는 12월부터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에 가입하여 계급적 문학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1931년 7월에 상임중앙위원, 9월에 부인위원회 책임자, 10월에 일본공산당에 입당, 11월에는 작가동맹, 미술동맹, 연극동맹, 음악동맹 등 각 전문별 문화단체를 연합체로 조직한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KOPF, コップ)의 중앙협의회 위원과 부인협의회 책임자이기도 했다. 이 KOPF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プロレタリア文化聯盟)』, 『일하는 부인(働く婦人)』, 『대중의 벗(大衆の友)』, 『작은 동지(小さい同志)』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유리코는 1932년 2월 초 문학활동의 동지이며 공산당 당원이기도 한 미야모토 겐지(宮本憲治)와 결혼하였다.

1932년 3월 28일 도쿄를 떠나 시오지리 시모스와 방면으로 가서 각지의 문학 서클을 돌아본다. 4월 5일 남편 겐지와 고우즈(國府津)에 있는 별장으로 갔다가 7일 혼자 도쿄로 돌아왔다. 그때 검거되어 6월 25일에 겨우 석방되었다. 겐지는 그대로 지하활동으로 들어갔으나, 1933년 검거되었다. 혼자 남게 된 유리코는 1934년 정식으로 겐지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그동안 유리코는 5회나 검거와 투옥을 거듭하였다. 특히 3회째의 검거 때에는 어머니를, 4회째에는 아버지를 여의고, 5회째는 그녀 자신이 감옥의 열악한 환경과 더위로 열사병에 걸려 인사불성이 되었으나, 끝내 전향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로서의 절개를 지켰다.¹⁰⁾

무엇보다 1933년 2월 20일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가 검거된 날 옥사하고, 미야모토 겐지도 1933년 12월 검거되자,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은 해산되었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옥사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활동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다키지는 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 잠입해 있던 특고경찰의 스파이 미후네 도메키치(三船留吉)¹¹⁾와 아카사카(赤坂)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약속 장소에는 미후네로의 연락을 받고 잠복 중이던 특고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키지는 도주하다 체포되어 쓰키지경찰서(築地警察署)에서 경시청 특별 고등경찰 계장 나카가와 시게오(中川戚夫)의 지휘 아래 추운 겨울에 발가벗긴 채 구타당해 마에

9) 西垣勤(1981) 상계서, p.79

10) 佐藤静夫(1968) 상계서, p.436

11) 미후네 도메키치(1909년 2월 10일-1983년 1월 7일)는 일본 사회 운동가, 실업가. 일본 공산 당원이면서, 특고경찰의 스파이로 활동했다.

다 병원(前田病院)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경찰 당국은 21일에 다키지가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유족에게 돌아 온 다키지의 시신은 온몸에 고문 흔적이 뚜렷했으며, 특히 하반신은 내부 출혈에 의해 거무칙칙하게 부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병원이 특고경찰을 두려워해 시신 해부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¹²⁾를 비롯해 운동지도자들이 잇달아 “전향”하였다. 그 당시는 일본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도 어정쩡한 채 급속히 좌경화 된 사회주의 인텔리의 사상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개인이 국가 권력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향하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유리코는 전향하지 않고 “검열과 집필금지 등 언론탄압의 격화, 경제상의 궁핍, 출옥 후의 건강상태 부조(不調)등, 모든 악조건과 싸우면서도 전쟁과 압제(壓制)의 봉사자로 전락해가는 보수적 문학과와 투쟁에 전력”¹³⁾하였다.

젠지는 1944년 무기 징역의 판결을 받아 끝내 홋카이도의 아바시리 형무소(網走刑務所)에서 복역하게 되지만 일본의 패전 후에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전체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지령하자, 1945년 10월 12년 만에 출옥했다. 그동안 남편과 나눈 약 900통의 서한은 유리코의 사후 『12년의 편지(十二年の手紙)』로 간행되었다.

유리코가 군국주의에 저항하며 지키려고 한 프롤레타리아문학은 “사회성, 계급성을 자각한 지금까지의 일본문학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성에 입각한 문학운동”¹⁴⁾이었다. 유리코는 스스로 부르주아적 배경에서 벗어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기본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였다.

그런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 「1932년의 봄」과 「시시각각」을 통하여, 다음 장에서 프롤레타리아작가 유리코가 그리고 있는 해방운동 서사를 분석해 나가기로 한다.

12) 나카노 시게하루는 1931년 여름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였다. 5월에는 공산당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도요타마 형무소(豊多摩刑務所)에 수감되었다가 12월 보석 출소했다. 다시 치안유지법에 의해 1932년 4월 체포되어 1934년 5월까지 도요타마 형무소(豊多摩刑務所)에 수감되었다. 그 때 전향을 강요당해 도쿄 공소원(控訴院)에서 일본공산당원인 것을 인정하고 공산주의운동에서 탈퇴할 것을 약속했다. 그 결과 구형 4년,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으로 즉시 출소했다. 笠森勇(2009)「中野重治 人と作品」『解釋と教材研究』54(1)、學燈社、p.72

13) 津田孝(1969) 상계서、p.491

14) 下田城玄(2016)「評論家としての宮本百合子の出発」『民主文学』658號、日本民主主義文学会、p.396

3.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해방운동 서사

3.1 여성 프롤레타리아작가의 활동

「1932년의 봄」은 최초 1932년 『개조(改造)』 8월호에 실렸으나, 후에 개정과 가필하여 1933년 『프롤레타리아 문학』 1월과 2월호에 연재하였다. 속편 「시시각각」은 1933년 6월23일 탈고했지만 특고경찰의 취조실상을 대담하고 리얼하게 폭로한 것이 문제되어 발표하지 못하고, 작가 사망 후 『중앙공론』 1951년 3월호에 게재되었다.

미야모토 겐지는 이런 작품을 발표한 것은 유리코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미야모토 유리코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작품에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정세, 특히 출정종업원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파업, 거기의 부인노동자, 문화서클을 결합하여 발전해가는 문화활동과 그 활동가의 계급적 고뇌, 유치장의 비인간적인 학대. 정치범의 병. 특고경찰의 포악한 취조 모양. <나>의 반응과 굴하지 않는 투지. 딸에게 전향을 권유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객관적 역할, 노동절 전후의 경찰의 움직임 등이 당시로서는 용기 있는 솔직함으로 묘사되어 있다.¹⁵⁾

이 두 작품은 “노동자 계급과 인민해방 운동에 폭력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결의”이며 “전쟁과 전제주의에 대한 항의”¹⁶⁾이기도 하다.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농민층 프롤레타리아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작가동맹의 상임 중앙위원회의 여성위원회의 보고나 의안은 구보카와 이네코와 <나>가 맡게 되었다. 작품에서 인물은 모두 실명으로 되어 있으나 유리코 자신은 <나>로 표현하고 있다.

부인위원회는 작가동맹 내의 여성작가의 세계관과 기술을 향상시켜 우수한 프롤레타리아 여성작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작가 동맹이 1931년부터 현저한 문학활동의 발전으로 확대한 동아리활동에 독자적인 적극성으로 참여하여, 기업과 농촌의 근로부인의 문학적 자발성을 고무 지도하고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영향 아래 조직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¹⁷⁾

15) 宮本顯治(1980)「轉換期と新しい試練」『宮本百合子の世界』新日本出版社、pp.94-95

16) 西沢舜一(1988) 상계서, p.415

17) 본문 인용은 본문 인용은 「刻々」(『宮本百合子選集』第3巻、1968)에 따름
婦人委員会は、作家同盟内の婦人作家の世界観と技術とを高め、優秀なプロレタリア婦人作家とし

일본에서도 1929년 세계 경제공황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농촌과 도시에서 여성들이 노동 현장에 뛰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서도 여성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근무조건이 열악한 방직산업의 여성노동자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문학서클을 만들어 직장 내 문제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32년 3월 작가동맹은 나가노 현 순회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가미스와(上諏訪)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제사공장 여공들과 청년단들과 좌담회를 했으며, 밤에는 스와신사(諏訪神社) 근처의 공민관에서 강연회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시모스와에 있는 제사공장 여공들의 실태를 알게 된다.

나가노 현만 구만명의 부인 노동자가 있다. 물론 섬유가 중심이지만 제사공장의 조직을 보고 나는 그것이 얼마나 여공을 착취하기 위해 계획되었는지 통감했다. 경영의 내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공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봄이 되면 권유원이 산 속에서 20명에서 30명 단위로 묶어 젊은 빈농의 딸들을 데리고 온다. 그녀들은 그대로 기숙사로 보내져, 9시간 노동을 착취당하고, 일이 없으면 다시 권유원에 의해 고향으로 함께 돌아간다. 다음 해에는 그때 다시 계약한다. 만성적인 계절노동의 성격과 심한 산업 노예적인 악조건 때문에 제사공장 여공의 수준은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¹⁸⁾

여성노동자들은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와 부모의 계약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여공들에게는 직접 봉급도 주지 않고 임금은 일정기간 일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 갈 때, 장부와 함께 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여공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난 후에 알게 되므로 항의도 할 수도 없었다. 이미 러시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얼마나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나>는 여성 문화조직이 중심이 되어 지배계급과 당당히 맞서서 부당한 대우를

て成長するために役立てるばかりでなく、作家同盟が一九三一年からの著しい文学活動の発展として拡大したサークル活動に独自の積極性で参加し、企業・農村における勤労婦人の文学的自発性を鼓舞・指導し、プロレタリア文学の影響のもとに組織する任務をもっている。(「刻々」p.44)

18) 본문 인용은 「一九三二年の春」(『宮本百合子選集』第3巻、1968)에 따름

長野県だけでもおよそ九万人の婦人労働者がいる。もちろん繊維が主なのだが、製糸工場の組織をみて、わたしは、それがどんなに女工を搾取するためにだけ恥なく仕込ま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痛感した。経営の内部にどんなことがあろうとも、女工は参与し得ないように組織されている。春になると、勧誘員に山の奥から二十人三十人と束にして、若い貧農の娘たちがつれて来られる。彼女たちはそのまま寄宿舎へしめ込まれ、九時間労働でしぼられ、用がなくなると、また勧誘員に追いたてられつつ故郷へと一団になって戻ってゆく。来年はそのときまた改めて契約される。慢性的な季節労働の性質と全然産業奴隷的な悪条件のために、製糸女工の水準は最も低いところのこされているのである。(「一九三二年の春」pp.6-7)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에서 출판 한 『일하는 여성』은 창간호부터 매월 발매금지의 연속이었다. 그 이유는 인습에 물든 사회구조 속에 여성들의 활동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당신들은 정도가 심하다든가, 여자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여자가 남자 수준 이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받는 돈은 반밖에 안됩니다. 완전히 여자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 확실히 해야만 한다. 당신들도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부인을 소위 여자답게 묶어 두겠지만, 하루 아침에 오래 병환으로 돈이 없어지게 되면, 경시청이 5년, 10년 부양해 주지는 않겠지요. 부인이 역시 어떻게든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간이 너무 길다든가 임금이 너무 싸다고 말하면 당신은 결코 ‘뭐야 여자답지 않아!’라고 아내를 꾸짖지 못할 것이다.”¹⁹⁾

<나>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수와 처우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라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필연성을 밝히고 있다.

3.2 사회의 해방운동 서사

일본정부는 <나>를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해 밝힌다는 명목으로 구속하였다. <나>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전에 시작하여 여섯시까지 진행되었다. 일본 공산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나>는 “일본공산당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당”이라며 “합법, 비합법은 그 나라의 상태에 의거하는 것으로 결코 공산당 그것의 본질적 속성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자 석방시키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유치장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제일 먼저, 지하철 파업동맹이 3월 20일부터 4일 동안 종업원 중 여성 40명을 포함하여

19) 「あなたがたは、高度になったとか女のようにではないとか云うが、實際今の世の中で、女は男なみ以上働かされている。それでとる金は半分です。キリギリ女をしぼっている。それでしっかりして来なければその方がどうかしている。あなた方だって、自分の体が満足なら細君を所謂女らしく封じて置けるだろうが一朝永患いをして金がないとなったら、警視庁が五年十年と養ってはくれないでしょう。細君がやっぱり何とか稼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なったとき時間が永すぎるとか、賃銀がやすすぎるとか云った時、あなた方は決して何だ女らしくない!と細君をどやしはしないのだ」(「刻々」pp.60-61)

약 100명이 참가하여 전국적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파업은 회사와 경찰의 중재아래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합의하는 조건 아래 강제 조정으로 끝났다.

출정병사는 결근해도 군대의 일당을 공제한 임금을 지불할 것, 각 역에 오존 발기를 둘 것, 숙직 수당과 화장실 설치 등을 획득하고, 여종업원의 유급 생리휴가 요구는 거절당하고, 여자의 휴가를 남자와 같이 하고 사무복을 여름용 두 벌, 겨울용 한 벌 지급 등이 관철되었다.²⁰⁾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자들을 감시하며 주동자로 여겨지면 수감시키고 있었다. 그 예로, 지하철 매표소에서 일하는 “아가씨 한 명”이 잡혀들어 왔다. 그리고 노동자와 직장인, 학생이 “임금인상”이나 “대우개선”을 요구하거나, “서클”이나 “독서회”를 열어도 끌려와 수감 당했다.

현재의 일본의 형편으로는 전위적 투사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노동자, 직장인, 학생까지도 유치장에 끌려와 협박과 구타를 당하고, 게다가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임금인상, 처우개선을 요구해도 바로 경찰서행이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지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죄 없는 서클이나 독서회를 가져도 29일 또는 그것을 다시 문제 삼아 구금한다.²¹⁾

<나>는 유치장에서 나가면 이런 상황들을 꼭 알리고 싶다면, May Day²²⁾를 대비하여 버스를 동원하고 휴가 중인 경찰을 배치하였지만 “메이지 대학생들의 데모”가 별 사고 없이 마무리 되는 경찰의 움직임도 적었다.

5월 15일의 해질녘, 누군가가 “이누카이가 당했다.”며 소리쳤다. 실제로 일어난 이누카이 쓰요시의 암살사건²³⁾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치장 간수는 <나>에게,

20) 出征兵士は欠勤とし軍隊の日給をさし引いた賃銀を支給すること、各駅にオゾン発生器をおくこと、宿直手当、便所設置その他を獲得し、婦人従業員の有給生理休暇要求は拒絶されて女子の賜暇を男子と同じによこせ、事務服の夏二枚冬一枚の支給、その他を貫徹した。(「刻々」p.44)

21) 現在の日本の有様では前衛的闘士ばかりか全く平凡な一労働者、農民、勤人、学生でも、留置場へ引ずり込まれ、脅され、殴られ、あまつさえ殺される可能性が非常に増している。極めて当然な賃銀値上げ、待遇改善を要求しても直ぐ警察だ。学生や職場の大衆が知識欲をみたすための罪のないサークルや読書会をもっても二十九日、又それをむしかえしての拘留を食う。(「刻々」p.54)

22) 메이데이(May Day): 노동절, 혹은 노동제(労働祭)는 세계 각지에서 매년 5월 하루에 열리는 축제. 유럽에서는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연합하여 권리 요구와 국제 연대 활동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23) 이누카이 쓰요시(犬養 毅, 1855년 6월 4일~1932년 5월 15일)는 중국 진보당 총재, 입헌 국민당 총재, 혁신 구락부 총재, 입헌 정우회 총재, 문부대신, 체신 대신(逋信大臣), 내각 총리대신,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등을 역임했다. 1932년 5월 15일 일요일 저녁 5시 반 경 해군 청년장교와 육군사관 후보생 등이 권총을 들고 난입했다.

“이건 나의 노파심이지만, 당신들도 이곳에서 깊게 장래를 생각할 때야. 이 모습으로는 결코 낙관은 할 수 없어요... 한다면 죽을 각오 해”라며, 그 말을 할 때 특별히 목소리를 낮추어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다.²⁴⁾

<나>에게 있어 관심사는 이누카이의 암살보다 그로 인해 형무서나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혁명적 노동자농민의 신변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런 사회의 살벌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유치장 내에서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조차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

유치장의 화장실에는 문이 없다. 세면대에서 돌아서면 3자에 한칸의 콘크리트에서 막다른 곳에 흐릿한 사각 거울이 달려 있다. 간수가 용변을 보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다. 창문이 없는 어두운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동안 자신의 머리는 미묘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였다.²⁵⁾

유치장의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수감자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하철 동맹파업, May Day 데모, 이누카이 암살사건 등 혼란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을 유치장으로 교도소로 수감시키며 화장실에서조차 감시를 하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3.3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 탄압

1931년 9월 <만주사변> 이후 군국주의적인 풍조 속에서 문화연맹은 탄압과 기관지 발행 금지가 잇따랐다. <나>는 “만주사변이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체제”²⁶⁾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만주침략전쟁과 이를 위한 심한 수탈도 그 전쟁의 명령자[두 글자]에 대해서도 인민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노예로 착취 당한 후 죽으라는 것이다. 이는 이성 있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24) これは私の老婆心からだが、あなたなんでもここで大いに将来を考える時だね、この様子じゃ、決して樂觀は出来ませんよ……やるなら死ぬ覚悟だ」と云い、そういう時は、特別声を潜め、言葉をひきのばして云うのである。(『刻々』p.65)

25) 留置場の便所には戸がない。流しから曲ったところが三尺に一間のコンクリで、突当りに曇った四角い鏡が吊ってある。看守が用便中のものを監視する為の仕かけである。窓のない暗い便所にかがんでいる間、自分の頭は細かくいろいろな方面に働いた。(『刻々』p.38)

26) 中山和子(2001)『『刻々』そのn他 - 二重の反空性のなかで』『宮本百合子の時空』翰林書房, p.168

것이다. 분노와 증오가 얼어붙은 눈을 밟는 것처럼 삐걱 삐걱 소리를 내며 온몸이 삐걱거리는 것을 느낀다.²⁷⁾

이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프롤레타리아작가들이었다. <나>는 자신과 함께 작가동맹 상임 중앙위원회의 여성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타 이네코가 만삭인 몸으로 수감 중인 남편 구보카와 쓰루지로를 기다리며 활동하고 있는 모습과 곤노 다이리키(今野大力), 고바야시 다키지, 구라하라 고레히토 등에 대해 적고 있다.

그 중 문화연맹 출판소의 충실한 동지였던 곤노 다이리키²⁸⁾가 중이염으로 점점 용태가 나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곤노가 중이염이라는 것을 알고 4월 24일 해질 무렵, <나>는 특고경찰에 갔을 때, 이와테 사투리를 사용하는 주임에게 집요하게 곤노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신들은 언제나 가정의 평화라든지 아버지와 자식의 정이라는 것을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으니
까, 뻔히 중이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여 한 가정의 가장을 유치장에서 죽일 수는
없겠죠?”

“흠.”

밤송이머리를 한손으로 뒤에서 끌어 올리며, 입술을 깨물듯이,

“꽤 고통스러운 모양이군.”

“너막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진찰을 받아 본적도 없는걸, 저렇게 두는 것은 정말
심하다.”²⁹⁾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곤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때때로 출혈을 하였다. 오늘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암시하듯 “감방 한가운데 이불”을 깔고 곤노 혼자 눕혀 놓았다. 그리고 “머리맡

27) 満州侵略戦争とのためのひどい収奪のことも、その戦争の命令者である〔二字伏字〕のことも、人民は見ざる、聞かざる、云わざる、奴隷として搾られ、そして死ぬというわけである。これは理性ある人間にとって不可能なことである。憤りと憎悪とが凍った雪を踏むようにキシ、キシと音をたてて身内に軋きしむのを感じる。(「刻々」p.62)

28) 곤노 다이리키(今野大力, 1904년2월5일-1935년6월19일)는 1931년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 결성에 참여하고 『프롤레타리아 문학』등에 반전시를 발표. 1932년 3월, 문화운동의 확대와 발전에 대해서 천황제 정부는 문화 활동가 404명을 체포하였다 이 때 체포된 곤노는 고마고메 경찰서에서 건강악화로 인사불성이 되어 석방된다. 곤노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고바야시 다키지가 학살되고 이마무라 쓰네오(今村恒夫)가 체포되자 「적기(赤旗)」배포 등에 참가한다. 다시 결핵이 악화되어 31세에 세상을 떠났다.

29) 「あなたがたは、いつも家庭の平和とか親の情とかやかましく云っているのだから、見す見す中耳炎と分っているのに放つといて、一家の主人を留置場で殺すことも出来ないでしょう」「ふむ」いがぐり頭を片手で後から撫であげ、唇をかむようにし、「一大分苦しいらしいね」「脳膜炎を起しかけてると思う……調べることもなんか無いんだもの、ああやって置くのは実際ひどい」(「刻々」p.48)

에 탈지면으로 만든 고름 닦는 막대기”와 두 명의 간호사까지 배치되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자물쇠가 열려 있는 철문을 밀어채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고열로 유치장의 더러워진 이불이 뒤라고 말할 수 없는 악취를 품어내고 있다. 나는 때와 질병으로 새카맣게 탄 듯한 곤노의 손을 꼭 잡고 초췌한 뺨을 어루만졌다.(중략)

“곤노”

그 목소리에 실눈을 뜨고 이쪽을 보았다.

“아직 죽어서는 안 돼요. 괜찮아요? 분하니까, 죽으면 안 돼! 괜찮아요?”

“아아.”

“정신 차려요.”

“아아……” 마른 입술을 핥으며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³⁰⁾

<나>는 이렇게 곤노의 모습을 지켜보며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소리친다. 서로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이다. 실제 곤노 다이리키는 그때 위험한 상태로 석방되었으나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구라하라 고레히토(蔵原惟人)³¹⁾와 고바야시 다키치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 면서도 구라하라 고레히토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고 있다.

일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 발전의 역사와 그의 업적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말하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의 초기부터 그 당시에 있던 객관적 조건을 마르크스주의 예술 이론가로서의 입장에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계급적 문화운동을 추진해 온 그의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구라하라 고레히토 자신의 예술 이론가로서의 발전 흔적을 더듬어 봐도 그의 생활 태도 자체가 투명한 마르크스주의자임은 분명하다.³²⁾

30) 自分はたまらなくなつた。錠をはずしてある鉄扉を押しあけ、房の内に入った。高热で留置場の穢れた布団が何とも云えぬ臭気を放っている。自分は、垢と病気で蒼黒く焼けるような今野の手を確り握り、やつれ果てた頬を撫でた。(中略) 「今野」その声で薄すり目をあけ、こっちを見た。「まだ死んじゃいけないよ。いいか? 口惜しいからね、死んじゃいけない! いいか?」「ああ」「しっかりして……」「ああ……」かわいた唇をなめて微かに「わかっているヨ」「(刻々)p.49)

31) 1929년의 경제세계공황이 일본에도 파급되어 공장의 도산과 조업단축 합리화에 의한 해고자가 격증하여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심각한 노동쟁의도 증가했다. 이런 사회분위기 변화 속에서 1930년에 몰래 소련에 도항하여 프로핀테른(Profintern) 회의에 참석한 구라하라 고레히토는 귀국 후 1931년 문학조직의 대중화를 제창했다. 탄압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러한 조직을 결성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끝내 새로운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을 결성(1931년 11월)하였다. 이 KOPF에 의해 문학뿐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의 조직도 만들어졌다.

32) 日本におけるプロレタリア文学運動の発展の歴史と彼の業績とが、切っても切りはなせない関係にあ

그렇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문화투쟁에 있어 “좌익문화·문학운동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론적 지도자”³³⁾라고 할 수 있다. 유리코는 “구라하라에게도 KOPF에게도 전면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다.”³⁴⁾ 그리고 고바야시 다키지에 대해서도,

혁명적노동자, 농민이 비인간적인 조건 아래서도 우선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지 고바야시가 「독방」³⁵⁾이라는 소설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어디에 있어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명랑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은 아니다.³⁶⁾

고바야시 다키지에 대해 오기노 후지오(荻野富士夫)는 “사회 부조리와 모순의 해결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을 추구하였으며, 만주사변 야기에 대한 “논봉(論鋒)은 문학평론에서 사회평론”³⁷⁾으로 예리함을 더해갔다고 평하고 있다. 이런 문학적인 행동이야말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와 문학이라는 조합은 단순한 대립물이 아니라, “정치는 문학과고, 문학은 정치”³⁸⁾라고 할 수 있다. 유리코는 이런 구레하라 고레히토와 고바야시 다키지 등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서구적인 활동을 했던 작가들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가 끝까지 특고경찰의 뜻에 따르지 않자 이번에는 어머니를 회유했다. <나>가 있는 곳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방문해 왔다. <나>는 십 수 년 어머니와 따로 살아왔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만나도 대립의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에게 “국가의 체면이라는 것을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라고

ることは、プロレタリア文学について一言でも語るものは一人残らず知っている事実である。日本におけるプロレタリア文学運動の当初から、その当時にあった客觀的条件を、マルクス主義芸術理論家としての立場からたゆまず積極的にとりあげ、階級的文化運動を押しすすめて行った彼の努力はなみなみならぬものであった。藏原惟人自身の芸術理論家としての発展の跡を辿って見ても彼が生活態度そのもので混り気ないマルクス主義者であ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一九三二年の春」p.28)

33) 江口渙(1976)『一九三二年の春』と『刻々』『宮本百合子 作品と生涯』新日本出版社、p.13

34) 中山和子(2001) 상계서、p.168

35) 고바야시 다키지는 1930년 치안유지법으로 구속 기소되어 도요타마 형무소(豊多摩刑務所)에 수감되어 1931년 1월에는 가석방 되었다. 그 해 발표 「독방」은 이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요타마 형무소는 치안유지법 시행 이후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많이 수용되었다.

36) 革命的労働者、農民が非人間的な条件の下にもひるまず闘いをつづけているのは本当である。同志小林が「独房」という小説の中で、プロレタリアは、どこにいても自信を失わず朗らかであると云っているのに嘘はない。(「刻々」pp.53-54)

37) 荻野富士夫(2009)「小林多喜二の文学観」『解釋と教材研究』54(1)、學燈社、p.58

38) 島村輝(2009)「政治と文學を傳位する-藝術的價值論争の軌跡に見出すもの」『解釋と教材研究』54(1)、學燈社、p.38

물었다. <나>는 여전히 현실감이 결여된 부르주아적인 어머니의 사상에 증오감 느꼈다. 특고 경찰은 근로계급의 생활을 잘 모르는 보수적인 어머니를 통해 국체를 운운하며 그 강한 기질을 유리코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나>는 답답하기까지 하였다. 비가 오는 날 어머니가 두 번째 찾아오셨다. 자신을 끌어 들인 스파이와 함께 왔다. 어떻게 왔느냐는 <나>의 질문에,

“부모라는 것은 어리석어.”³⁹⁾

갑자기 어머니가 방 밖을 엿보듯이 작은 목소리로 “방금 그 사람, 어디에 있니?”라며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곁으로 오게 했다. 어머니는 누군가 권유로 <나>를 설득하려 오신 것이다. “벌써 두 사람 자백했다”며, <나>에게 출소하기 위해 공산당에 자금을 공급했다는 거짓자백을 하라는 것이다. 비굴을 확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한 어머니 얼굴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나는 돈 따위 준 적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알겠어요? 나는 절대 준 적 없다고요.” 어머니의 옆으로 바싹 다가가 귓가에 말했다. “어머니가 지금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알아요? 스파이예요. 저쪽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자주 바쁘게 뛰어다니는 부모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요, 부탁이니까…….”

문 쪽에서 헛기침하는 소리가 났다.⁴⁰⁾

특고경찰은 <나>에게서 공산당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자 어머니를 통해 거짓자백을 강요한 것이다. <나>는 이런 비합리적인 어머니의 접근을 시도하는 특고경찰의 비열한 방법이 무엇보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어머니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끝내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과 공산당은 합법적인 단체이므로 제국주의 전쟁의 중압과 탄압은 결코 무력한 계급 조직을 향하여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투쟁하였다. 그런 결과 6월 25일 <나>가 석방되는 것으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39) 「親なんてばかなものさ」(「刻々」p.79)

40) 「私は、金なんぞ、だ、し、て、はいない」と云った。「わかったこと?私は、だ、し、てはいないのよ」母親のそばへずっとよって、耳で云った。「おっかさんが今何の役をさせられているか分る? ス・パ・イ・よ。むこうは、わけの分らない、只うまく立廻ろうとしている親をそういう風に利用しているのよ。しっかりして頂戴、たのむから……」ドアのところで、咳払いがする。(「刻々」p.81)

4. 결론

이상과 같이, 유리코가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에 대한 탄압으로 1932년 4월7일 검거되어 6월 25일 석방되기까지의 체험을 등장인물과 장소 모두 실명으로 그린 작품 「1932년의 봄」과 「시시각각」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해방운동 서사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의 유리코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리코는 초기 작품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에서부터 농민들의 가난한 생활상을 모델로 하였으며, 그 후에도 빈부의 차이, 인종차별, 남녀 성차 등, 사회현상을 테마로 한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러시아를 다녀와서는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과 공산당에 가입하여 계급적 문학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유리코는 검거와 투옥을 거듭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검열과 집필금지 등 언론탄압은 물론 건강상태도 점차 악화되어 갔다.

게다가 고바야시 다키지가 1933년 2월 검거된 날 옥사하고, 미야모토 겐지도 1933년 12월 검거되자,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은 해산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를 비롯해 운동지도자들이 국가 권력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리코는 전향하지 않고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은 합법적인 문화 단체이며, 발전하는 인간사회의 역사성에 따른 문화 활동을 벌이는 단체라는 확신으로 스스로 부르주아적 배경에서 벗어나 그 기본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였다.

그런 정신이 「1932년의 봄」과 「시시각각」에 잘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은 여성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방적공장의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많이 다루었다. 여성노동자들은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와 부모의 계약에 의한 노동이므로 직접 봉급도 받지 못했다. 이런 여성들이 사회로부터의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장 내에 문학서클을 만들어 그들이 스스로 작품을 통하여 사회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다. 유리코가 중심이 되어 그런 내용을 실을 수 있는 잡지 『일하는 여성』을 창간하였지만, 창간호부터 매월 발매금지의 연속이었다.

<나>는 유치장에서 지하철 동맹파업, 노동절 파업에 대해서도 경찰 개입으로 외형적으로는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자들을 감시하며 주동자로 여겨지면 수감시키고 있는 실상을 알게 된다. 그리고 유치장 내에서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화장실도 감시대상으로 문이 없을 정도이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누카이 쓰요시”의 암살사건을 접하며, <나>의 관심은 그 사건으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수많은 혁명적 노동자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리고 <나>는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의 대 탄압으로 이어진 만주사변을 침략전쟁으로 보며 이성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런 대 탄압의 희생자 곤노 다이리키, 고바야시 다키지, 구라하라 고레히토 등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다. 그 중 문화연맹 출판소의 충실한 동지였던 곤노 다이리키가 감기에서 중이염으로 전이되어 점점 용태가 나빠지고 있는 과정에서부터 끝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려 유치장내의 비인간적인 학대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특고경찰이 <나>가 끝내 공산당과의 관계를 부인하자, 이번에는 공산당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거짓자백이라도 하면 출소 시키겠다고 어머니까지 회유했던 부분까지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유리코는 일본 프롤레타리아작가로서 이 두 작품을 통하여 사회성과 계급성에 따른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차별의식과 전제와 공황, 제국주의 전쟁의 중압과 정치적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방운동을 그려내고 있다.

【參考文獻】

- 江口渙(1976)『『一九三二年の春』と『刻々』』『宮本百合子 作品と生涯』新日本出版社、pp.146-156
 笠森勇(2009)『中野重治 人と作品』『解釋と教材研究』54(1)、學燈社、pp.70-77
 大田努(2009)『宮本百合子 ヒューマニズム思想の発展』『解釋と教材研究』54(1)、學燈社、pp.60-68
 萩野富士夫(2009)『小林多喜二の文学観』『解釋と教材研究』54(1)、學燈社、pp.52-59
 藏原惟人(1976)『作家・革命家として宮本百合子』『宮本百合子作品と生涯』、新日本出版社、pp.46-56
 佐藤靜夫(1968)『解説』『宮本百合子選集』3、新日本出版社、pp.435-453
 西垣勤(1981)『宮本百合子の昭和十年前後—『一九三二年の春』『刻々』まで』『日本文學』30(12)、日本文學協會、pp.79-89
 西沢舜一(1988)『解説』『日本プロレタリア文学集』28、新日本出版社、pp.409-425
 島村輝(2009)『政治と文學を傳位する-藝術的價值論争の軌跡に見出すもの』『解釋と教材研究』54(1)、學燈社、pp.30-39
 下田城玄(2016)『評論家としての宮本百合子の出發』『民主文學』658號、日本民主主義文學會、pp.394-400
 中山和子(2001)『『刻々』そのn他 - 二重の反空性のなかで』『宮本百合子の時空』、翰林書房、pp.162-179
 宮本顯治(1980)『轉換期と新しい試練』『宮本百合子の世界』新日本出版社、pp.80-105

논문투고일 : 2017년 03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0일
 2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16일

 <要旨>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해방운동 서사
 - 「1932년의 봄」과 「시시각각」을 중심으로 -

이상복

「1932년의 봄」과 「시시각각」은 유리코가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에 대한 탄압으로 1932년 4월7일 검거되어 6월 25일까지의 체험을 그린 작품으로 등장인물과 장소는 모두 실명이다.

이 두 작품에서 여성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 여성노동자들의 계몽과 권익보호를 위한 문학 서클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하철 동맹파업, 노동절 데모, 이누카이 쓰요시의 암살사건 등 불안정한 사회상도 함께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만주 침략전쟁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며, 그로인해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의 대 탄압으로 이어진 것에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곤노 다이리키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려 강한 동지애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치장에서 행해지는 비인간적인 학대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나>의 어머니까지 회유하여 거짓고백 유도하는 특고경찰의 비합법적인 행동도 밝히고 있다.

Narrative of the Liberation Movement of Proletarian Literature
 - Focusing on The Spring of 1932 and Kokukoku -

Lee, Sang-Book

The Spring of 1932 and Kokukoku are both based on the true story of Yuriko's arrest on April 7, 1932 and her subsequent experience until June 25 as part of a crackdown on the Japanese proletarian culture league. The names of the characters and places in the novels are all real. The names of the characters and places in the novels are all real. From these two works, we can see that female proletarian authors support literary circles for the enlightenment of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emale laborers. It also exposes the instabilities in society such as subway union strikes, Labor Day demonstrations, the assassination of Tsuyoshi Inukai, etc. Above all, it portrays the Japanese invasion of Manchuria as an irrational act, and expresses discontentment over the resulting great repression of the proletarian culture league. Especially it demonstrates a strong sense of comradeship by depicting in detail how Kondo Dairiki dies as a result of not receiving proper medical care, and on the other hand reports the inhumane abuses going on in the jails. Furthermore, it describes the unlawful acts of the special police who elicit false confessions from the mother of <Me> by placating her.